세상이슈에 덮인 천국이슈

(마태복음 13:51~58)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슈에 덮인 천국이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이슈에 덮인 천국이슈'

이슈 덮기는 잘못된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의 특종이나 북한 관련 소식 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슈(issue)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논점, 논쟁거리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세간에서는 뜨거운 관심거리라는 의미로써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즉 사회의 관심이 뜨겁게 활성화되고 있는 대상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이슈 덮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마음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슈는 언제나 세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당장은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삶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천국이슈가 세상이슈에 의해 덮여버리기 십상입니다.

이슈는 곧 뜨거운 관심거리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뜨거운 관심거리로 존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서 천국은 이슈가 되지 못하고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천국을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의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슈가 천국이슈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족보다 나의 몸보다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나랏일이 가장 가까운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먼저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을 이슈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고 싶다면 마음에서 천국을 이슈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마음에서 자녀보다 더 가까이 온 천국이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천국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아직 온전히 갖지 못했어도, 천국과의 연결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면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천국이슈는 세상이슈에 덮여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나 배우자의 일들이 이슈가 되어 천국을 덮어버리고, 대통령의 마음에서는 나랏일이 이슈가 되어 천국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쌓여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마음에서 천국만이 이슈가 되게 하라.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고향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가까이 온 천국을 연결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영역으로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사는 땅에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에 연결되었기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한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께도 육체의 가족은 있었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으며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과 연결된 상태에서 보이신 지혜와 능력을 놀라워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에서 천국을 이슈화하게 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놀라워하기는 했으나 기존의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그 지혜의 말씀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도 천국과 연결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천국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도 혈연관계를 들먹이며 예수님을 평가 절하합니다. 55~56절에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천국과 연결되어 계셨고 몸으로는 땅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땅 뿐만이 아닌 천국과 연결되어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땅에 대한 연결부분만을 굳이 극대화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의 혈연관계라는 세상이슈로 지혜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천국이슈를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입에 담고 사는 기독교인이나 선민들이야 말로 지금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되면 세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표류하던 사람이 육지를 발견할 때에 바다는 끝나게 됩니다. 사막에서 헤매던 사람이 초원을 발견할 때에 사막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천국이 이슈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천국을 봄으로써 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더는 세상의 가치들로 좋음과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좋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좋음은 기쁨으로써의 가치를 잃고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죄로 인해 이 세상의 좋음을 놓고 싶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좋음을 배설물로 여기고 폐기물로 여기게 하는 마음이 천국의 좋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배척하게 합니다.

똑같은 무게의 금과 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금 대신 납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금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금보

다 납이 더 좋다고 속였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배척한 고향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천국의 좋음을 보고도 굳이 세상의 좋음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이슈가 되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쁨은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본래라면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귀에게 속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쁨을 가치 없게 만드는 천국의 기쁨을 싫어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재벌회장에게는 돈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재벌회장의 마음에 천국이 이슈가 된다면 그 마음에서 더는 돈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주는 기쁨에 비하면 돈이 주는 기쁨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돈이 주는 기쁨을 잃을까 두려워서 천국을 배척하게 됩니다. 재벌회장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천국을 배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천국이 주는 기쁨을 갖게 된다면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의 기쁨은 무가치해집니다.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두려워하도록 사람을 속였고 그로인해 천국은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척하는 방법이 세상이슈로 천국이슈를 덮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과 연결되어 계신 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도 천국이 이슈가 되기를 바라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사람들은 예수님과 땅의 연결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천국이슈를 덮어버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금 마음에서 천국이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될 때에 예배당 건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를 늘릴 전략을 세우려 고심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된다면 지금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초대형 예배당의 담임목사님들입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이슈로 삼지 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에서 천국이 이슈가 된다면 평생을 노력해 일궈놓은 초대형 예배당과 수만 명의 교인 숫자가 휴지조각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이 마음에서 이슈가 되는 동안에는 천국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의 제자를 서기관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윗의 시편 같은 구약 성경들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것들이 낡고 희미해질 때에는 새롭게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말씀 담당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를 서기관에 비유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제자란 곧 마음이 천국과 연결이 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천국과 연결된 사람이 하는 일은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과 연결이 되고 또 언어라는 그릇에 천국을 담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서기관의 본분과 닮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것과 옛것은 천국을 전파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서기관은 천국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과 관련된 언어를 통해 마음에서 천국을 이슈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소설일 뿐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이슈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현실 사회에서의 사건으로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서기관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서기관은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관리하고 전하는 자들이었으나 그 마음이 천국과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ἐξουσία)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천국이라는 실제 존재와 연결된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 관련 언어를 말함으로써 세상에 천국을 이슈화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소설처럼 여기는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실체로써의 천국과 연결됨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슈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배척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슈로 천국이슈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써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천국이슈를 전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돈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인의 마음에서는 돈이 이슈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써 천국이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돈은 천국보다 가까울 수 없습니다. 몸이 있기에 돈 문제와도 관여하게 되지만 천국은 마음에서 몸보다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천국을 이슈로 삼을 수 있을 때에 천국으로부터 돈 문제에 대한 뜻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어떤 교인이 건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교인의 마음에서는 건강이 이슈가 된 상태입니다. 건강이슈가 천국이슈를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써 천국의 이슈를 되살려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이슈로 삼을 수만 있다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새것은 마음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삶을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새것이었습니다. 옛것은 천국에 연결된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천국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연결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그 언어 속에 천국이 사실로써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나의 삶은 물론이고 타인의 삶도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 속에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과 연결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서기관의 마음을 해석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는 다르게 천국과 마음이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성공이나 거처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8~39절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천국을 이슈로 삼고 있는 사람은 무고하게 맞을지라도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석하는 언어는 새것이 됩니다. 오늘의 설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옛것으로 꺼내고 또한 지금 천국에 연결된 마음으로 해석하여 새것으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혼재해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된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천국에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슈에 덮인 천국이슈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이슈에 사로잡힐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임을 인정함으로써 천국이슈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적재적소에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슈가 천국이슈를 덮고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천국이슈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연결 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마다 천국을 담아내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